

제9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삼복학술상) 수상논문

‘보이지 않는 아이들(Invisible Children)’ -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의 적응 욕구와 삶 기획의 의지

정가영

이 연구에서는 한국 내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특히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의 삶 경험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사회적 배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invisible children)’로 살아가는 이주 청소년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한편, 이들의 자조(self-help)와 세력화(empowerment)를 돕는 지원 단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몽골 청소년들의 삶이라는 장(場)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체류 지위상의 제약으로 인해 주 변화 되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화하기 위해 부단히 도전하고 해석하는 행위자라는 점이다. 연구자는 2007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주 청소년, 가족, 교사, 지원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간 이주 청소년들에 대한 재한과 연구가 피해자화(victimize) 또는 복지의 수혜 대상이라는 관점 속에 갇혀 있었다면, 행위자로서 이들이 지닌 적응 욕구와 삶 기획의 의지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 구분배제모형, 초국가적 연결성, 적응, 자조, 세력화

1. 문제제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과 인구의 전지구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소비패턴, 문화적 기호가 유연하게 변화되었고, 통신 및 운송의 발달로 시공간은 압축되었다(Harvey, 1989: 186). 이러한 변화에 따른 초국가적 이주자의 부상은 오늘날 영토적 경계를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의 개념을 허물어뜨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Appadurai, 1996). 근대적 개인이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보호받았다면, 최근의 월경(越境)하는 개인들은 거주국과 국적의 불일치 속에서 장기 체류나 연속적 이주를 실천함으로써 기존의 폐쇄적인 ‘국민’ 개념에 균열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이주자 1백만 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단일민족과 순혈주의적 전통을 고수해 왔던 한국은 ‘단일문화로 구성된 민족국가’라는 근대적 전제를 해체하고 이주자와 원주민의 공존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주 관련 정책은 상생을 위한 기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통제의 기제로 기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차 ‘한국인’을 출산할 자로서의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는 통합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은 단기 체류 후 본국으로 귀환해야 할 존재로 간주되어 지원의 기본 범주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이주자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그 자녀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문제를 다루는 공론장에서조차 주변화되는 역설이 초래되고 있다(오경석 외, 2007).

이 연구는 제한 이주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invisible children)’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첫째, 구조적 배제 속에서 사회권·의료권·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하고 있는 이들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을뿐

더러¹⁾, 곧 본국으로 귀환해 한국에서 보이지 않을 것을 요구받는 존재들이다. 둘째, 이주 청소년들의 한국살이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언급된다 하더라도 편향적 관점에서 재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다. 결국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구성해나가고자 하는 이주 청소년들의 의지와 자조 노력은 간과된 채 ‘불쌍한 아이들’, ‘무기력한 아이들’로만 조명되어 왔던 것이다. 피해자화(victimizing) 담론은 분명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착화된 재현으로 이어질 경우 이주자들을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만 조명할 위험이 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 청소년들에 대한 재현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담보한 ‘위험한 아이들’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주노동자 자녀, 특히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의 삶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이주노동자 학령기 자녀들의 약 70%가 몽골 출신²⁾으로 그 수가 가장 많고, 둘째,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질한 민족 집단으로 연구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으며, 셋째,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 A학교를 비롯하여 몽골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 기관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계는 대표성을 지닌다.³⁾ 몽골 청소년들의 삶이라는 장(場)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체류 지위상의 제약으로 인해 주변

1) 2006년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자녀 중 취학연령대인 만 7세에서 18세의 아이들은 17,287명으로, 그 중 7,800여명은 국제학교에, 1,209명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약 8,000여 명의 보이지 않는 학령기 아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법무부, 2006).

2) 노충래·홍진주(2006) 참조.

3) 한국 내 몽골 이주자의 수는 2008년 3월 현재 약 33,000명으로 이 중 이주노동자는 약 25,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자녀, 즉 몽골출신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 학령기 아동의 70%인 1,700여 명이다. 2007년 4월 현재 한국내 인가 학교에 재학중인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는 총 32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2007).

화 되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화하기 위해 부단히 도전하고 해석하는 행위자라는 점이다. 연구자는 사회적 배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로 살아가는 이주 청소년들을 가시화하고, 이들의 자조(self-help)와 세력화(empowerment)를 돕는 지원 단체의 의미에 주목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이주 청소년들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가 이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목적이다.

2. 이론적 논의

1) 이주 정책 유형과 이주노동자

캐슬과 밀러(Castles & Miller, 1993: 244-250)는 이주국의 정책 유형을 크게 구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구분배제모형은 국가의 기반이 동일 혈족 공동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이주자 및 그들의 자녀를 국가의 성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적대적 태도는 이주자 배제 정책(이주자에게 안정적 거주 지위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주국에서 가족이 재결합하는 것을 제한), 엄격한 귀화 규율, 그리고 '이민국'이 되지 않으려는 각종 이데올로기로 드러난다. 구분배제모형의 국가는 이주자들을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사회부문에만 받아들일 뿐, 복지체계, 시민권 그리고 정치적 참여와 같은 부문의 동참을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이주자는 시민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에 관한 모든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 모델은 방문노동자(guest worker)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주로 나타난 것으로, 중동 산유국,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의 신흥 이주국에도 적용된다.

한편, 동화모형은 일방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이주자들을 이주국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국가는 이주자들이 모국의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지우고 이주국의 구성원들과 유사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주자의 언어 습득을 돕고 이주자 자녀의 취학을 허용한다. 초기의 급진적 동화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통합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이주자들이 특정 직업군과 거주지에 집중되고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일방적 동화정책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된 것이다. 통합 정책은 이주자의 적응이 집단간 결속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이주자들을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흡수하는 데 있다. 통합 정책이 동화 정책의 느리고 온화한 형태라는 지적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동화모형은 프랑스에서 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범주는 다문화모형(또는 다원화모형)인데, 다문화모형에서는 이주자들이 다양성을 간직한 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도록 한다. 고전적 이주국인 호주, 캐나다, 미국은 이것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주자 집단을 사회에 조속히 통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다문화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성원권은 이주의 허가에서부터 시작되어 국가 전반에 걸쳐 이주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부적인 시행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이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와 민족 공동체를 인정하는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면, 캐나다, 호주, 스웨덴은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주자의 통합을 돕는다.

방문노동자의 한시적 노동만을 허용하고 이들의 장기적 체류나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는 한국은 위 유형 중 구분배제모형에 해당된다. 방문노동자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영구 거주자나 미래의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거절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주 후 다소간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공권력에 의해 적발되거나 추방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킴리카(Kymlica, 2002)는 자발적 귀국의 희망에 기반한 정책이 매우 비현

실적이며, 그것이 보다 확장된 사회를 위협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한 정책은 영구적으로 권리가 박탈되고, 소외되고, 인종적·민족적으로 규정된 하위 계급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상 가능한 결과들은 이주자들, 특히 이주자 2세대들의 정치적 소외, 범죄, 종교적 갈등, 심지어는 폭력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전지구화된 이주의 시대에 이들을 합법적 이주자로 간주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한국은 위의 범주 중 구분배제모형에 해당된다.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동반은 불허되고 있으며, 반인권적인 단속과 추방은 강화되고 있다(오경석 외, 2007). 무시, 침묵, 무권력적 상황 외에는 선택할 것이 주어지지 않은 이주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간 주권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편협하게 정의되었던 사회성원권의 개념은 변화하는 세계인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이 재구성되어야 하며(김현미, 2005: 83),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적 타자의 공존을 전제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 이주정책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비국민이자 미등록 이주자로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이들과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한국 사회가 갖추어나가야 할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고자 한다.

2) 이주자 자녀의 적응

이주 청소년들은 인종적, 민족적 편견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심리적 비하(psychological disparagement)'와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에 노출되기 쉽다(Espenshade & Belanger, 1998).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열등하고', '게으르며', '잠재적 범죄자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주자에 대한 배타적 시선을 내면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De Vos & Suarez-Orozco, 1990). 이러한 현상은 모두 이주 청소년이

두 문화의 가장자리(margin)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그들은 '여기'와 '저기' 그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소속되기 어렵다. 탈구(dislocation)된 자들로서 이주자들은 두 문화권 모두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그 어느 쪽의 구성원도 될 수 없는 것이다(Stonequist, 1937).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역설적으로, 이주자 당사자로 지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탈영토화된 상상력을 발휘하는 문화해석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Appadurai, 1996). 몽골 이주 청소년들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며 언어와 문화를 익혀 왔고 외모상 한국인과 크게 구별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주자 '표식'을 지우기 쉬운 위치에 놓여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민족, 타국민에 대한 교묘한 차별과 배제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계성에 주목하여, 이주 청소년들의 경험이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떤 교섭과 개입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최근 일군의 학자들은 이주자 자녀들이 일상의 생활영역에서 두 개 이상의 국민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유연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Glick-Schiller, Basch & Blanc-Szanton, 1995).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시된 '초국가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의 개념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주자가 자신의 고향사회를 떠나 일방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정착되고 통합되기 보다는 이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신국과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상호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주자 자녀들의 초국가적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주자 자녀들이 모국 문화에 대한 학습,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 공동체와의 교류 활동 등의 실천을 통해 모국과 이주국 사이의 중간자 혹은 초국가적 주체로서 자신을 위치시켜나간다는 점에 주목한다(Levitt & Waters, 2002). 새롭게 형성된 초국가적 사회 영역(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모국과의 관계 단절 및 한 국가에의 귀속을 전제해 온 기존의 시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제한 이주자 자녀들 사이에서 모국 공동체를 통한

적응 및 자조 노력, 매체를 통한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그리고 자신을 특정 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 ‘사이에 끼인 존재’ 혹은 ‘연속적 이주자’로 간주하는 경향 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을 차용할 수 있다. 이주자 자녀들을 고립된 존재로 여기기보다 모국 및 지원 집단과의 연결성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향후 이주자 자녀의 자조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건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연구자는, 이주 청소년의 적응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주자 자녀의 ‘세력화(empowerment)’의 조건과 그 효과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세력화’ 개념은 억압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에 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Cox, Gutierrez & Parsons, 1998). ‘세력화’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계화된 구조에서 하위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Presser & Sen, 2000)이라는 의미로 시민단체들의 의제(agenda)로 활용되었는데, 근래에는 점차 집합적인 행위 뿐 아니라 개인적인 행위 수준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Kilby, 2002). 이에, 오늘날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삶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관계적·정치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일련의 행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Gutierrez, 1990). 이주자 논의에서도 이 개념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파이퍼(Piper, 2004)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구 송출국과 수용국들의 정책, 국제협약 및 비정부기구(NGO)들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법적 규제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전체 이주자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이주자 ‘세력화(empowerment)’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제한 이주 청소년들이 체류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위를 침해받지 않도록 당사자와 지지집단이 함께 실천해 가는 ‘힘 돋우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를 활용할 것이다.

3. 이주 배경과 이주자 자녀의 법적 지위

1) 개혁·개방 이후의 몽골사회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몽골은 1920년대부터 약 70년 동안 ‘작은 소련(the small Soviet)’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및 경제제도에서 구소련의 경제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김홍진, 2007). 1980년대 후반부터 구소련과 동구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 되자 몽골은 1988년 12월 몽골판 페레스트로이카인 ‘시네칠렐(shinechlel)’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0년 9월에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개혁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1992년 1월 13일에 몽골 대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를 탈피하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게 되었다(조은경, 2004).

몽골은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급진적 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로 인해 물자 부족, 무역수지의 악화 및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발생했고 국내총생산 또한 급속히 감소했다.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몽골인들은 국외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존에 러시아, 중국, 동독 등 사회주의권 국가에 머물던 이주 대상 국가도 미국, 호주 등으로 확대되었다. 포셋(Fawcett, 1989)은 국가간 노동력 이동의 연결 범주로 국가간 관계, 대중문화의 연결구조, 가족·개인의 연결망, 인력충원업자의 활동 등을 꼽았는데, 몽골인의 한국 이주 과정에서도 이 네 가지 범주가 나타난다. 이주자들의 송금과 물자 이동으로 인한 경제 공헌을 목격한 몽골 정부와 자원 외교가 중요해진 한국 정부의 대 몽골 이해관계가 맞물린 가운데,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4) 특히 체제전환 초기인 1992년과 1993년에는 경제 위기가 고도로 악화되어 1992년 인플레이션이 325%에 이르렀다. 물가상승률의 지속적 감소로 1998년 6%까지 안정되었던 인플레이션은 1999년 10%, 2000년에는 8%로 다시금 높아지기도 했다(바야르체체크, 2001). 1992년 이후 약 10년간 인플레이션 현상은 안정되어 오고 있지만, 주로 구리·금 등의 천연지하자원 관련 산업과 목축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로 인해 몽골경제는 여전히 세계시장의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상 변화에 의해 큰 부침을 겪고 있다(이일청, 2006).

개입으로 2006년 7월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갱신·체결했다. 90년대부터 이어진 한류열풍은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기폭제로 작용했고⁵⁾,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에 남은 가족과 친척 및 친구를 불러들이면서 연쇄이동이 이뤄져 몽골-한국 간 노동력이동의 연결망이 생성되었다. 사적 이주고용 알선업체들의 활동 또한 이주의 주요한 촉매제다. 이주 진입 장벽이 높고, 이주 노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다시 이주노동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주자들은 점점 더 이들 브로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높은 실업률로 인한 취업기회 부족과 저임금, 국내 정세 불안정이 노동력 송출국가로서 몽골의 핵심적인 인력 배출 요인이라면, 노동력 유입국으로서 한국이 내재한 흡인요인으로는 먼저 3D 직종의 인력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비숙련 노동 중심 중소기업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사업주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의 사용자 단체를 통하여 이주노동 인력의 합법적인 활용 제도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1991년에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를, 1993년에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근로하는 ‘노동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업체에 공급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이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해 2000년 4월부터 ‘연수 2년+취업

5)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당시 방영된 ‘모래시계’를 비롯해 한국 드라마가 수차례 방영되어 인기를 끌자 한국식 옷차림과 화장, 한국식 인테리어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소위 ‘솔롱고스식’이라 불리는 한국풍이 몽골 사회에 확산되는가 하면(김현미 외, 2007: 44), 1996년 7월 11일에는 울란바토르시에 ‘서울의 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현재 몽골은 인구비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나라이다.

1년'제로, 2002년부터는 '연수 1년+취업 2년'제로 변경했으나, 연수생 제도의 편법활용, 미등록노동자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고용허가제는 2004년 7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4대 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등 이전에 비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직장 이동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노동 중의 단결권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고용허가제 시행 하에서도 미등록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가 갈수록 장기화되면서 그들을 둘러싼 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라는 신분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 가족,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문제이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후속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상의 문제로 교육권, 의료권, 사회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유입과 그 구체적 문제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상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이주자 자녀의 법적 지위

한국의 이주노동자가족 관리정책의 핵심은 가족 동반 입국의 금지다. 전문직과 학술 목적의 입국 인력이 아닌 이상 모든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입국할 수 없다. 법무부는 만 18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부모인 성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통해 추방될 경우 자녀들만 한국에 남게 되므로, 아이들에게 드리워지는 불안은 줄어들기 어렵다. 한국 내 법적 지위는 곧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데, 현행 교육제도 또한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미 UN에서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도 이를 1990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또한, 최근의 국제 규약은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그 자녀의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체류 내지 취업이 불법이거나 그 자녀의 체류가 불법이더라도 이주 근로자의 자녀는 그 나라 국민과 같이 평등한 처우에 기초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은 아직 이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내법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 30조에 의해 자녀의 기본적 지위가 보장되고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협약상의 이주노동자 자녀의 법적 지위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수 년 전의 일이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3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대개 브로커를 부모로 위장하여 입국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출입국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설동훈 외, 2003: 46-47).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5월, “학교 입학 시 해당 지역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로 신분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고, 이후 이주노동자 자녀의 일반 학교 입학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6월, 해당 부처가 다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토록 법령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진입은 다시금 어려움을 맞게 되

었다. 개정안이 일선 학교장들 사이에서 그간 이주노동자 자녀의 전·입학을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허락하던 관행 대신 출입국증명서와 같은 공식 자료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국내 체류 지위와 교육권에 관한 시민단체 내에서의 논의와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하는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실질적인 지위 개선을 보장하는 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이주아동 및 이주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4.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자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몽골 이주자 자녀대상 학교인 서울의 A학교에서 주 1일씩 자원활동가로 일하고, 이 학교의 모체인 B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청소년부 보조 교사로 활동하며 몽골 이주 청소년들과 만났다. 2008년 1월과 2월에는 관련 단체인 C공동체의 한국어 교사로 일하며 성인이주자, 특히 몽골여성이주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몽골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교사, 지원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participate observation)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병행하며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졸업식, 후원의 날, 체육대회, 이주자 축제 등 A학교, B교회, C공동체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를 참여 관찰하고, 서울 D한글학교와 경기도 E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타 지원 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은 2007년 10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주노동자 자녀와 교사, 조력자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정보제공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물론 일찍 노동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근로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는 이들 중 A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10개월 동안 연구자와 주 1회씩 꾸준히 만나 온

이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 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상황에 따라 1-2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면접을 가 졌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 및 학교를 방문해 면접 대상자의 부모님이나 교사와 도 만남으로써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연구자는 때 로는 이주 청소년들의 친한 한국 언니·누나로, 때로는 한국어 선생님이 나 멘토로 규정되었고, 또 때로는 A학교의 자원봉사자 혹은 이주 학부 모들의 자녀교육 상담자로 자리잡기도 했다. 이 논문의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자와 정보제공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수집된 것이다.

<표 1> 연구참여자 : 이주노동자 자녀

이름 ⁶⁾	나이	소속	체류 기간	법적 지위	부모 직업
나쓰야	18	A학교-중학교	3년	미등록	부: 이삿짐 센터 모: 피부미용관리사
짜짜라	13	A학교	3년	미등록	상동(나쓰야와 자매)
아르공	15	A학교-중학교	3년	미등록	부모 모두 공장 근로
엘카	17	A학교-중학교	4년	미등록	부: 몽골 거주 모: 공장 근로
게를레	17	A학교-중학교	4년	미등록	부모 모두 공장 근로
수보타이	19	A학교-고등학교	4년	유학 비자	형이 공장 근로
남바트	18	A학교-고등학교	4년	유학 비자	부모 모두 몽골 거주
빌궁	19	A학교-고등학교	9년	미등록	부모 모두 몽골 거주
일힘바야르	18	A학교-고등학교	6년	미등록	부모 모두 공장 근로

<표 2> 연구참여자 : 부모, 교사, 지원단체 활동가

이름	구분	국적	비고
강은혜 선생님	A학교 교감	한국	·
윤지희 선생님	D한글학교 교사	한국	·
정영숙 선생님	G중학교 교사	한국	나쓰야의 담임교사

6) 모두 가명 처리

5. 이주 청소년의 적응과 세력화(empowering)

1) 적응 전략과 문화 해석

이주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또래, 교사, 이웃 등 한국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시각으로 한국사회를 해석하기도 하고 본국인 몽골을 새로이 바라보기도 한다. 그런데 두 사회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한국 체류 기간 및 지지집단과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류 기간이 짧고 지원기관과 연계되기 전의 기간에는 몽골의 타자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빌궁: 저 왔을 때는[90년대 후반] 외국 학생 그런 거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되게 어렵게 들어갔고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놀림만 받은 거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머리에 박혀서[세뇌되어서] 몽골 싫었어요. 못 살고, 지저분하다고. 뉴스에 외국사람 범죄만 있잖아요, 저도 외국인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고 머리 나쁘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국 애들이랑도 친해지기 쉽다고요. 몽골이 나한테 해 준 게 있나, 왜 나는 몽골이라서 맨날 욕먹고,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아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주자 자녀의 입국이 흔치 않았던 90년대 후반에 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해 온 빌궁의 이야기는 이러한 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주 청소년들은 점차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지원기관 및 조력자들과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 기존의 시선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엘카: 처음에는, 아 한국은 되게 좋은 나라, 몽골은 후진 나라,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식만 봐도 한국은 예쁘고 깨끗한데 몽골은 고기만 먹고 야만인 같고. 몽골 사람이란 거 남들이 아는 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한국 온 지] 좀 되니까요 더 아는 거 많아져요... 또 A학교랑 P센터 선생님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해라 그랬어요. 한국도 옛날에 못 살았대요. 그러니까

몽골도 나중에 잘 될 수 있잖아요. 러시아랑 친하다가 러시아 바뀌고 어려워진 거잖아요. 일자리 없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공짜 아니고, 일하고 돈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 돈 받은 거 또 여기서 쓰니까 한국에 나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옛날에 우리[몽골인]처럼 미국이나 일본에 그렇게 갔다면서요.

나쓰야: 우리학교[A학교]가 좀 됐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교복 보면 “아, 몽골 애들”. 그래서 학교 근처랑 000역[A학교 인근 지하철역]에서는 크게 떠들고 길에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거 안 해요. 동생들[후배]한테도 “야 조용히 해”, 그렇게. 몽골 사람들 이미지 안 좋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라고. 지하철역에서 표 살 때 버릇없게 하면 “재네 몽골 애들이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남자 중에 담배 피는 애 있대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 애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개네[몽골 학생]가 만약에 [A학교] 동네 놀이터나 PC방에서 담배 핀다 그러면, 그건 진짜 몽골 사람들 이미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애들이랑 다르잖아요.

게를레: 애들이 놀리거나 함부로 말해도 처음에는 아무렇게도 못했어요. 일단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고, 안다고 해도 그 때는 따질 생각 못하잖아요. 이제는 한국말 잘 하니까 가만 안 있어요. 지금도 학년 바뀌면 남자애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야, 너 몽골에도 자동차 있냐?” “니넨 다 천막 살지? 말 타고 학교가지?” 아, 진짜. 저는요, “몽골에도 자동차 다 있거든? 모르면서 니 맘대로 얘기하지 말래?” 딱 그래요. 만약에 말 타고 다닌다고 해도요, 그런 걸로 사람 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는 아예 딱 붙잡아놓고 가르쳐요. “야, 너가 미국에 간다고 생각해봐. 한국 진짜 안 유명한 거 알지? 너네가 외국 갔는데 거기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한국 욕하면 좋겠어?”

몽골 이주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와 몽골사회를 해석하고 일상적 차별에 개입하는 데에서 나아가, 스스로 외국인의 흔적을 지우고 ‘한국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차별의 기제 밖에 자신을 놓기도 한다. 이것은 피부

색과 외양에서 한국인과 큰 차이를 지니지 않는 몽골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해 가능하다. 몽골 이주 청소년들이 낯선 장소, 즉 자신의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서 입을 열지 않거나 능숙하게 한국어를 잘 구사할 경우 이들은 곧잘 ‘한국인’으로 간주되며, 아이들은 경험적으로 그 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나쓰야: 처음에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이 전단지 돌리던 사람이 “너 외국인이야?”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말이 좀 이상해서.” “저 조선족인데요” 했더니 “아, 그럼 외국인이 아니네.” 그래서 지금 여기[공장]에도 사장님한테 조선족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유미’라고 한국 이름 대고.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저번 회식 날, [웃음] “몽골 애들 중국 애들은 일 진짜 못하잖아. 중간에 막 그만 두고.” 그래요. 역시 유미는 한국 피가 섞여서 일 열심히 잘 한다고.

낯선 사람이 자신의 국적을 물어봤을 때 ‘조선족’ 또는 ‘해외교포’라고 자신을 설명했다는 것은 나쓰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청소년들로부터도 어렵잖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나쓰야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일터에서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어디서 오셨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럴 때 조선족이라고 받아치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편하게 넘어 간다’는 것이다. 나쓰야는 공장에서 일할 때 회식자리에서 동료 아줌마들이 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만약 자신이 몽골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 분들이 똑같이 자신을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이질적인 것과 타협을 벌여 나가야 하는 불편한 위치에 있다. 눈치 보는 위치, 불안정한 위치, 모욕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항없이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그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김현미, 2005: 40). 이주 청소년들은 그러한 압박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그것을 통해 이주국 사회가 자신들에게 덧씌우려는 주변화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

몽골 이주 청소년들은 이동기와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어

와 한국 문화, 한국식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혀 왔고, 한국인과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한국인에 동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들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는 것'을 지향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몽골 이주 청소년들은 양국 어느 쪽에 쉬이 포섭되기보다는 그 편입의 과정에서 교섭하고 해석하며 나름의 행위자성을 드러내고 있고, 구별적으로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학교를 위시한 다양한 지원기관과 공동체를 통해 일방적인 포섭이나 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몽골 이주 청소년의 사례는 환경에 따라 이주자 집단의 사회문화적응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주 청소년들은 일방적 적응을 거부하고 자신의 한국생활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부당한 차별에 대한 크고 작은 저항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당한 이주자 담론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파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찰을 통하여 집단적 차원에서 한국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점, 합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개인적 교섭과 또래 이주 청소년들과의 경험 공유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action)을 취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2) 몽골과의 초국가적(transnational) 연결성

이주 청소년은 학교와 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재한 몽골 공동체, 인터넷을 통한 본국과의 교류 등 다양한 연결망과 상호작용 속에서 한국생활을 꾸려나간다. 특히 이주자 집결지(enclave)로서의 몽골타운, 재한 몽골 이주자로 구성된 크고 작은 몽골 공동체, 웹을 통한 본국과의 초국가적 연결성은 이방인으로서 타국살이를 해나가는 이주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화되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동대문운동장 인근 광희동에 위치한 몽골타운은 몽골 상점 밀집 건

물인 '뉴 금호 빌딩'을 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매주 일요일이면 약 200여명 가량의 몽골 이주자들이 모여들어 '주말 집결지(weekend enclave)'의 모습을 보인다. 이주자들은 이국땅에서 본국의 음식과 노래를 즐기며 서울을 탈영토화 한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에 의한 시공간 압축(Harvey, 1989)은 웹을 통해 본국의 소식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위성통신으로 몽골의 TV 방송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주자들은 몽골타운을 방문함으로써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본국의 식료품, 영화 DVD 등을 구입하여 이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랜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성인 이주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주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남바트: 몽골 같아서 좋아요. 거기 가면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 [도] 말 걸어요. 너 어디 다녀 물어봐요. 우리 애도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저도 막 자세하게 [얘기해요]. 제가 [갈 때 마다] 꼭 가는 곳 있는데요, [웃음] 선생님[연구자]도 몽골타운 가봤어요? 뉴 금호 빌딩에 몽골 비행기 사무실[몽골항공사] 있어요.

연구자: 왜 몽골타운 갈 때마다 거기 가?

남바트: 항상 가는 거는 아니고요, [한국] 애들이랑 안 좋으면 가고요, 몽골에 친구 생각날 때 [가요]. 가서 [비행기 값] 요새 얼마 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 얼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마음속으로] 아 빨리 돈 모아서 몽골 가야지, 그러면서 학교[기숙사] 와요. 거기서 몽골 신문 팔아요. 그거 사서 메신저로 애들[한국의 몽골 친구들]한테 뉴스 같은 거 얘기해주고.

남바트에게 몽골타운은 고향인 몽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한국 생활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찾게 되는 '집결지'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친구들과 부딪힐 때 몽골항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몽골로의 귀국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주 청소년들은 남바트와 같은 이유 외에도 고향음식으로 몽골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갖고자 또는 몽골어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용돈을 모아 몽골타운을

찾는다. 좋아하는 몽골 연예인의 사진이나 잡지도 빠지지 않는 구매 아이템이다. 몽골 상품을 접하고 본국의 문화를 느낌으로써 지속적으로 본국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몽골 축제 및 몽골인들의 모임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C공동체에서 매년 주최하는 이주노동자 페스티벌과 나담 축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C공동체와 A학교는 같은 설립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A학교 출신인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두 행사에 참여해 왔다. 이주노동자 페스티벌은 지난 2007년 12월에 C공동체와 서울 소재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몽골 이주자뿐만 아니라 이란, 인도, 필리핀 등 C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국 이주자들이 참가하여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나담 축제는 몽골의 가장 큰 연례행사 중 하나로, C공동체 및 재한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의 주최 하에 서울에서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사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주한몽골대사, 몽골 MN방송국 등 다양한 몽골 관계 인사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몽골 전통공연과 씨름, 활쏘기 대회, 전통 음식과 복장 체험 이벤트 등이 축제를 구성했다.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국내에 있는 3만 5천 몽골인들에게 서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며, 시민들에게는 이색적인 몽골 유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나쓰야: [그런 행사] 좋아요. 몽골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몽골 잘 모르니까 [행사를 통해서] 몽골 더 알 수 있어요. 저 작년에 나담 축제 때 [G중학교] 담임선생님이랑 반 애들한테 초대장 되게 많이 줬어요. 꼭 와서 보라고. 근데 담임선생님 진짜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A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막 자랑하고요, 담임선생님한테 계속 설명도 했어요. 이주노동자 페스티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C공동체]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 도와야 돼요. 몽골 사람들이랑 외국 사람들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일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주노동자 페스티벌과 나담 축제 모두에 의욕적으로 참여했던 나쓰야는 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몽골 이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한국에 몽골을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만 일하게 하면 안 되고 이주자들이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에서는 한국인이 제공한 이주자 축제의 소비자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나쓰야의 요청으로 나담 축제장을 방문했던 나쓰야의 G중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당시의 일들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정영숙 선생님: 나쓰야는 자기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던데. 저를 몽골 그 축제에 초대했어요. 선생님 꼭 와야 댜다 그래서 갔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하게 돼 있더라구요. A학교 덕분인 거 같아요. 여기 기관의 도움이 정말 크죠. 사실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놓여 있는데, 혜택이고 개한테 복이었던 거지, 그 기관을 만난 게.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이 계속되면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버디버디’ 메신저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자주 받게 되었다. 버디버디는 자체 ‘미니홈피’ 기능과도 연동되는데, “뱃글 달아주세요”라는 연구참여자들의 요청으로 미니홈피를 찬찬히 둘러보면서 연구자는 몽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정서에 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최신 가요를 BGM으로 설정해 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슈퍼주니어 폴더를 따로 만들어 둔다거나 혈액형별 연애 타입에 관한 인기 게시물을 스크랩해 둔 이주 청소년들의 미니홈피는 얼핏 보기에 여느 한국 청소년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10대들의 미니홈피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마다 고향인 몽골의 사진이나 관련 뉴스, 몽골 관련 동영상상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키릴 문자 자판 서비스가 닿지 않는 경우에는 몽골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음가대로 써서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한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동영상이었는데, 연구자는 그 많은 뮤직비디오와

몽골TV 방송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졌다.

수보타이: 아, 그거요? ‘유튜브’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연구자)이 말한 그 몽골 가수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mongol doo’라고 치면 꼭 나와요. 적어드릴게요. (연구자의 노트에 인터넷 주소를 적어주며) ‘뚜’가 몽골말로 ‘노래’라는 뜻이에요. 인터넷 되면 한국, 미국(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 메신저 하나까 요새 몽골에서 뭐 뜬다 그러면 그걸로 보내줘요.

이주 청소년들은 비록 몸은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본국의 대중문화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몽골의 또래집단에서 화제가 되는 대중문화나 일상정보에 관해 ‘치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주 청소년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준다. 그것은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위로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몽골로 돌아가야 하기에 최신 정보를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메신저로 본국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도 연락을 취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결성을 유지해 나간다.

이처럼 이주 청소년들은 몽골타운, 몽골공동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본국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일상의 생활영역에서 두 개 이상의 국민국가와 관계를 맺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Glick-Schiller, Basch & Blanc-Szanton, 1995). 즉, 이주국에 구성되어 있는 초국가적 사회영역을 통해 이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신국과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상호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주자 자녀들은 모국문화에 대한 학습,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 공동체와의 교류 활동 등의 실천을 통해 모국과 이주국 사이의 중간자 혹은 초국가적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간다(Levitt & Waters, 2002). 이것을 이주자 자녀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 또는 ‘새로운 민족주의’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초국가적 활동은 정착과 재이주라는 순환적 이주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구적 정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의 경우, 법적 지위의 취약

성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해소하고, 몽골로의 귀국 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초국가적 사회영역과 연계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초국가적 연결성은 자신의 삶을 기획해나가고자 하는 이주자 자녀의 선택에 따라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세력화의 맹아

이주 청소년들의 세력화는 이들의 지지집단이 되어주는 학교, 지원 기관, 몽골 공동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주는 부모가 자녀를 유능하게 호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모의 “경험의 지도(map of experience)”를 뿌리부터 침식해 버림으로써 새로운 문화(new culture)에서 부모의 역할을 앗아가 버린다(Hoffman, 1989). 부모가 갖고 있던 숙달된 지식들은 이주해 간 사회에서 효용성 없는 노하우로 전락하게 되고, 역동적인 새 사회의 질서와 교섭해 나가야 하는 자녀들을 돕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야근과 잔업으로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미등록 이주자 단속으로 인한 강제출국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부모는 이주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지지세력이 되어주기 어렵다. 지지집단은 이러한 부모의 공백을 매우면서 한국사회와의 매개자로 역할함으로써 이주 청소년들의 자조를 돕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주요한 지지집단은 초기 한국 적응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A학교이다. 이러한 점은 올해 봄에 개최된 A학교 ‘후원의 날’ 행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참여관찰 일지: 2008년 5월 16일 A학교에서는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A학교의 이사장과 후원회장 등을 비롯하여 주한몽골대사, 관할구청장, 국회의원, G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차례로 강단에 올라 짧은 연설을 가졌다. 관할구청장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인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A학교를 거점으로 우리가 향후 몽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주한몽골대사는 “몽골

자녀들은 한국학교에 입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개인과 회사 등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1시간 반여에 걸쳐 진행된 후원의 날 행사에서 A학교 재학생들은 노래, 합주, 촌극을 비롯하여 사물놀이·태권도 등의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몽골기에·몽골전통춤·칭기스칸 시 낭송 등의 몽골문화 공연을 고루 선보였다. A학교 강은혜 교감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다. 이들은 몽골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는 말로 행사의 종료를 알렸다. 전교생이 무대와 복도에 줄지어 서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를 합창하는 것으로 A학교 제4회 후원의 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저마다 한국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학교 출신 이주 청소년들은 모교의 주요한 연례행사인 ‘후원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 각기 다른 교복 차림으로 기꺼이 달려왔다. 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외국인학교로 인가받으며 ‘정식 학교’로 거듭난 A학교는 국제 학교 법규상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후원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즉, ‘후원의 날’은 재학생, 졸업생, 후원자 모두에게 A학교의 건재함을 축복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기원하는 의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쓰야: ‘후원의 날’ 마다 꼭 와요. 우리학교니까, 당연히 저희도 와야죠. 그 날 선생님[연구자]이 처음 봤다는 남자애들은 지금 경기도 살아요. 멀어도 다 와요. 우리학교 없었으면 저랑 오늘 모인 애들도 다 되게 힘들게 지냈을 거예요. 올해는 한국 손님[후원자 및 귀빈] 더 많이 와서 더 좋은 거 같아요. 몽골 대사도 오고. A학교는 후원 있어야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무대에서 재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선보이고 객석에서 후원자 및 학교 관계자들이 공연을 지켜보는 동안, 선배들은 강당 뒤편에서 후배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하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

주 청소년들은 특히 한국과 몽골에 관한 정보를 왕성하게 교류하며 서로의 상황에 대해 조언했다. 최근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한국사회 내의 인식과 제도가 바뀌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입학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고등학교 진학과정부터는 입학과 학업, 학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엘카: 얼마 전에 학교에서 OO디지털고등학교 탐방 갔는데, 시설 되게 좋더라.

게를레: 너는 고등학교 여기서 안 갈 거라며?

나쓰야: 너 여기서 고등학교 가. 몽골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기 중고등학교 내용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도 여기 있잖아. 그냥 여기서 고등학교 가.

짜짜라: 지금 몽골에 일자리 없어서 되게 힘들대. 알바 할 데도 없고. 젊은 여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돈 벌 생각 안 하고 돈 많은 남자 잡을 생각만 한대. 시계, 구두, 옷 딱 세 개 본대. 나이트 가면 고등학생 어린 애들도 되게 많다고.

엘카: 그래, 아빠가 그러는데 남자가 여기서 이사 알바하면 하루에 십 만원 받잖아. 그런데 몽골 가면 하루에 8천원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

나쓰야: 나 그 때 [한국]고등학교 붙었는데도 안 가서 지금 뭐해. 공장 두 달 다니고 지금 그냥 놀잖아. 일단 여기서 고등학교 가. 알아보면 장학금 다 있어.

엘카: 지금 엄마가 여기저기 [장학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나쓰야: 알아보면 다 있어. 고등학교에 나중에 부탁해도 되고. 그리고 너 중학교 졸업장, 몽골이름으로 써 달라 그래. 나중에 몽골에서 쓸 지도 모르잖아. 헤진[엘카의 한국이름]이로 돼 있으면 나중에 너 맞는 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엘카가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진학, 진로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처럼 A학교 출신 이주 청소년들은 이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개인적인 후회나 성과로 남기기보다, 자신과 유사한 환경에 놓인 다른 청소년들과 공유하고 조언함으로써 서로의 자활을 돕고 있다. 특히 A학교 졸업이나 전학 이후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재회하여 서로의 안녕을 확인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고 다른 지역, 다른 소속 집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나누었다.

이와 같은 자조와 세력화의 양상은 A학교 출신 학생들 사이의 ‘내향적 지지’에 머물지 않고 ‘외향적 지지’로 확대되어, A학교 밖 이주 청소년들의 자조를 위한 협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아르공의 하루 일과에는 새로운 일정이 추가되었다. 전학 온 1학년 몽골 남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아르공: 원래는 아침 자습 시간 그 때 제가 숙제하거든요. 개 위해서 내가 손바닥 맞아 가면서. [웃음] 제가 숙제도 안 하고 한글 가르치는데 애가 열심히 안 해요. 제가 이제는 선생님들 마음을 안다니까요. 애가 어려서 뭘 몰라요. 한국말을 해야 친구도 생기고 수업도 알아듣는데. 저는 A학교 [한국어] 배우고 와서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연구자: 매일 아침 과외해주기 힘들지 않아?

아르공: 왜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학교에 몽골말 할 줄 아는 사람, 저 딱 한 사람. 사실, 애를 받았으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학교가 알아서 해야지, 제 시간 날아가고 솔직히 이게 뭐예요. 그래도, 진짜 내 동생이나 같으니까. 그러구요, 한국어를 아침마다 교무실에서 가르치거든요? 제가 가면 선생님들이 다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몽골 선생님 왔네”, “아르공 덕분에 ooo도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저번에는 어떤 선생님이, “몽골 친구들끼리 잘 도우니까 보기 좋네” 그랬어요. 제 칭찬 아니고, 몽골 사람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아르공은 '선배' 이주 청소년으로서 갓 이주해 온 1학년 몽골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었다. 한국어를 익히지 않으면 또래집단과의 관계 형성과 수업 이해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고 A학교에 다닌 후 다시 전학해 올 것을 권해보기도 했으나, 그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한국 학교에서 시작해야 조속히 한국어를 익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르공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르공의 학교가 있는 경기도 지역에는 가까운 곳에 이주 청소년 지원기관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아르공이 임시로 '한국어 과외'를 계속하고 있다. 아르공은 이를 통해 후배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스스로도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 청소년들은 A학교를 통해 관계 맺은 또래집단의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른 이주자와 연계하며 자조와 세력화를 도모해 나간다. 스스로가 문화접변 지대에서 경험했던 문화갈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주자와 학교생활 사이의 '매개자', '중재자'로 역할하며 후속 이주자의 적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후속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것과 동시에 기존 이주자의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확장적인 세력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것은 "모든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개입의 상상력으로 '타자'와 만나고, 이를 통해 확장적인 자아를 구성하려고 애쓰는 일(김현미 2005: 45)"이기도 하다. 이주 청소년들이 드러내는 이와 같은 방식의 자조와 세력화 방식은 다문화시대에 부합하는 감수성 발현과 그 개입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6.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삶 기획의 한계

이주 청소년들에게 몽골은 그들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고향'으로 그려진다. 이들에게 몽골로의 귀향은 현재의 불법적 한국 체류생활의 청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귀환의 욕구가 곧 가까운 미래에 몽골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10대 초반에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이주 청소년들은, 한국의 문화와 규범에 익숙해져 있다. 대중문화 취향과 소비문화, 예의범절 그리고 사회인식에 이르기까지, 10대를 한국에서 보낸 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은 10대 한국 청소년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웹이나 한국의 몽골인들을 통해 몽골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지만, 일상적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몽골보다 한국 쪽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몽골보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인 삶 기획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편이 몽골에서 자라는 것보다 다양한 자원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바트: 나중을 생각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게 좋죠. 일단 한국말 잘하면 나중에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관광 가이드 일 생각하고 있어요. 몽골어 나중에 공부 더 하면 통역사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저는요, 이제 몽골보다 한국이 더 친한 느낌 있어요. 제가 그 때 몽골 다시 가서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와, 몽골 있는데 떡볶이랑 김치찌개, 삼겹살 막 생각나고요, 몽골 유행가보다 한국 노래 듣고 싶고 그래요. 몽골에서는 몇 살 차이 정도는 그냥 바로 친구거든요, 몽골에서 몇 살 아래 동생들이 바로 반말하니까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 무조건 다 존댓말 쓰는데...

‘한국어’는 이주 청소년들에게 ‘자원’이자 ‘경쟁력’의 의미를 갖는다. 몽골과 한국과의 교류가 증대되고 있고, 몽골의 한국계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로 자주 언급되는 직업은 ‘통역사’, ‘관광 가이드’, ‘항공 승무원’, ‘한국어 교사’ 등이다. 한국어와 몽골어를 고루 구사할 수 있을 때 구직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직업을 고려

하기에는 한국과 몽골 어느 쪽에서든 적절한 교육 자원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기점으로 진로 계획의 한계를 본격적으로 실감하게 된다. 여기에는 제도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입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까다롭고, 학교측에서도 언어구사 능력이나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은 중학생 이주 청소년의 입학은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주 청소년이 입학하여 대학입시 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걸쳐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금이나 급식비를 비롯한 학비에서도 중학교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주 청소년들의 학부모는 이와 같은 현실에 부딪치면서 자녀의 한국 고등학교 진학을 재고해보게 된다. 학교 입학이 쉽지 않은데다 학비 부담이 추가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거나 몽골로 돌아가 학원을 다니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 교육과정이 10년으로 구성되는 몽골의 학제에 견주어 볼 때, A학교에서 10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수여받거나, 한국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필수적인 학력 과정은 마쳤다고 판단하는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 청소년들은 또래 한국 청소년들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가정형편과 부모 의사를 고려해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강은혜 선생님: 나쁘야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갔으면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학비가 부담되고 그래서 학비를 냈다가 취소하고 도로 받았다고 하던데,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든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면 학비 일부든지 전부든지 감액을, 그런 길이 열려요. 일힘바야르 같은 경우는 3년 다 장학금. 교복도 다 맞춰줬어요. 한전에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수도공고를 보내 준 거예요. 일단 어떤 게 중요한지, 애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몽골로 보내서 학교를 다니든지 해야 됐는데 몽골 보낼 것도

아니면서. 학교 충분히 다닐 수 있잖아요,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포기한 거죠.

강은혜 선생님은 제도적 배제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의지 부족 또한 고등학교 진학 포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녀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그로 인해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이 적지 않은 액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은근히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고 돈을 벌어서 올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D한글학교의 윤지희 선생님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한국 학교로의 진학은 물론, 한국어를 배우고자 D한글학교에 다니는 것도 부모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윤지희 선생님: 애들 교육에 관심 없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애가 여기서 공부해봐야 얼마나 하나, 돈이나 벌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D한글]학교에 오려면 부모와 싸우고 오고, 그런 식의 일이 되게 많았어요. 부모 입장에서서는 어차피 그런 거,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지 뭐 그러냐. 심지어는, 한국 학교 보내놓고서도 힘들니까 저희가 방과 후 학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여기 방과 후 학교 오면 저녁 안 해 놓는다고 안 보내고. 내지는, 차비가 아깝다... 못 오는 애들 물어보면 대부분 차비를 못 받아서 그런 애들 많아요. 의지가 없는 부모님들 많아요. 우리도 한창 어렵던 시절에 애들 교육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나쓰야는 두어 달 가량 작은 수영복 공장에서 수영복의 장식 리본을 매거나 실밥을 뜯으며 '시다'로 일했다. 나쓰야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안타까워 한 A학교와 G중학교 선생님들이 공장 일을 그만둘 것을 꾸준히 설득했고, 본인 스스로도 학생이 아닌 노동자로 지내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두 달 만에 나쓰야는 시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비하여 한국어를 심층적으로 배우고자 대학의 한국어학당 입학에 관해 알아보았으나, 학교 측은 번번이 '미등록 외국인은 입학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했다. 어학당 입학은 불가능

하고, 이주자 대상 센터 중 심화과정의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곳은 거의 없었다. 자신이 원하는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나쓰야는 얼마 전부터 종로의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

나쓰야: 어린 애가 학원 다니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학교 안 다니냐고... 친해지고 싶은데요, 그냥 모르는 게 나를 거 같기도 해요. 불법체류데,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거 뭐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꿈은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학교도 안 다녀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학교 안 다니니까 더 불안해요. 교복 입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진짜 그냥 길에서 잡혀갈 거 같아요. 그래도... 잡힐 때까지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이주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체류 지위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이주 경험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신의 삶에서 의미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가족과의 견해차나 제도적 제약과 부딪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어 혼란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요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래집단이나 지원기관을 통해 세력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개입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주 청소년들은 이내 임시적 이주자로서 혹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자녀로서 주어진 환경 밖의 삶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주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로서의 위치는 이들의 국적, 민족, 계층에 따르는 이미지에 각인된 문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청소년기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껴나게 되거나 노동시장으로 조기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7. 결론

2000년을 전후로 많은 이주자 자녀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고, 2007년 4월 기준으로 약 2만여 명의 학령기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 연구자가 만나 온 이주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숙제와 성적을 걱정하고, 좋아하는 대중 스타에 열광하며, 또래 및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평범한 10대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한국생활 경험과 한국어 구사능력을 활용하여 양국의 매개자로 일할 수 있는 직업군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들을 불법체류자 또는 조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로만 규정한 결과, 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생활에의 적응 의지와 안정적 거주 희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이들의 삶 기획은 1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함께 생활해 왔던 또래 한국인 청소년들이 학업 성취나 진로 기획으로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장기 체류의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안에 쫓기게 되면서 미등록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체류 지위가 지닌 제약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이주는 성인 이주처럼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주에 의해 ‘종속적으로 실천’된다. 이러한 이주의 조건과 전제를 상기할 때, 미등록 이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 자녀들에게까지 처벌과 제재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체류 확산을 막겠다는 의욕만으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아동·청소년 자녀의 교육권·건강권·사회권마저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 규약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적 이주정책의 빈곤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위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07년을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자 1백만 명 시대’에 대한 인식 제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자 1백만 명 시대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었던 근대적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이주자를 타자화, 주변화하지 않으면서 이주자 사회와 한국사회, 이주자와 한국인 사이의 같음과 다름을 나란히 이해해 가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등장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한국사회를 다시 성찰해 보는 계기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상생의 조건’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주자를 향한 ‘정상성’과 ‘효용’ 논리는 잠시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도 좋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들의 삶 경험에 주목하여, 체류 지위상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화하기 위해 부단히 도전하고 해석하는 이주 청소년들의 행위자성(agency)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몽골인의 한국 이주를 추동하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입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한국살이를 가시화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 내 자조 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본국과의 초국가적 연결성을 조명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는가를 이주 청소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그간 이주 청소년들에 대한 재현과 지원이 피해자화(victimize) 또는 복지의 수혜 대상이라는 관점 속에 갇혀 있었다면, 행위자(agency)로서 이들이 지닌 한국 사회에의 적응 욕구와 삶 기획의 의지에 주목했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1).
- 김현미 외. 2007.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홍진. 2007. “체제전환이후 몽골의 거시경제 성과분석과 전망”. 『몽골학』. (23): 263-289.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 『한국아동복지학』 . (22): 127-159.
- 바야르체체크. 2001. “몽골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치경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외.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한울아카데미.
- 이일청. 2006. “몽골 노사관계에 관한 소고”. 『노동사회』 . (106): 130-137.
- 조은경. 2004. “몽골의 부패 현황 및 반부패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 9(3): 207-229.
- 법무부. 2006. “2006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법무부. 2007. “2007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2004. 『고삐 풀린 현대성』 . 현실문화연구.
- Castles, S. & M. J. Miller. 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 Guilford Press.
- Cox, E. O., L. M. Gutierrez & R. J. Parsons. 1998.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De Vos, G. & Marcelo M. Suarez-Orozco. 1990. *Status Inequality: The Self in Culture*. California: Sage.
- Espenshade, Thomas J. & Maryanne Belanger. 1998. “Immigration and Public Opinion”. In Marcelo M. Suarez-Orozco, ed. *Crossings: Mexican Immigration i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Cambridge. 465-403.
- Fawcett, James T. 1989. “Networks, Linkages, and Migration System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671-680.

- Glick-Schiller, N., L. Basch & C. Blanc-Szanton.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2.
- Gutierrez, L. M. 1990. "Working with Women of Color: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Work*. (35): 149-153.
- Harvey, David. 1989. *The Urban Experien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초의수 옮김. 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 Hoffman, Eva. 1989. *Lost in Translation: A Life in a New Language*. Penguin Group.
- Kilby, P. 2002. "NGOs and Civil Society: The Indian Ca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Studies Associ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 Kymlic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Oxford. 장동진 외 옮김. 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Levitt, P. & M. C. Waters. 2002. *The Changing Face of Home: the Transnational Lives of the second generation*, New York:Russell Sage Foundation.
- Piper, Nicola, 2004. "Gender and Migration Policies in Southeast and East Asia: Legal Protection and Sociocultural Empowerment of Unskilled Migrant Women".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2): 216-231.
- Presser, H. B. & G. Sen. 2000. *Women's Empowerment and Demographic Processes: Moving Beyond Cairo*.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ames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ersity Press.
- Stonequist, E. V. 1937. *The Marginal Man: A Study in Personality and Cultural Conflict*. New York: Scribners.

UN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정가영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며,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과 자녀양육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청소년 등 이주자 자녀를 주제로 한 공저 『한국의 이주청소년(2009)』 출간을 앞두고 있다.

[2008. 12. 31. 접수; 2009. 5. 27. 채택]